

E1001 종신 채권형(VL)통합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종신 채권형(VL)통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 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종신 채권형(VL)통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6538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7.03.20
운용기간	2022.01.01 ~ 2022.03.31	종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종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종신 채권형(VL)통합	자산 총액 (A)	3,098	3,028	-2.24
	부채 총액 (B)	1	1	-1.62
	순자산총액 (C=A-B)	3,097	3,027	-2.24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979	1,984	0.23
	기준가격 (E=C/D × 1000)	1,564.45	1,525.90	-2.46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022년 1분기 채권 시장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 스탠스를 강화하여 큰 폭 약세를 보이고, 커브는 플랫트닝 되었습니다.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하고,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매끄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1월 FOMC에서도 미 연준이 매 FOMC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고, QT 시행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2월 중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로 안전자산 선호되며 금리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유가 폭등 및 물가 상승 우려로 그 폭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미 연준을 비롯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스탠스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 펀드에서는 단기구간대비 중장기 구간 비중을 Overweight하여 만기 구성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물가채 중심으로 중독선택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벤치마크 대비 성과 Outperform 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2분기 국내채권 시장은 전락후강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언급함에 따라 이르면 4월 혹은 총재가 본격적으로 주재하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국과 달리 수출 경기 전망 악화와 함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며 성장과 물가 흐름이 점차 디커플링되고 있다는 점이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리인상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100bp까지 벌어졌던 점, 내년도 미국/한국의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하였을 때 국내 최종 기준금리는 2.25%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2년 이상 구간의 금리 메리트는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수급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불확실성 해소되는 국면에서 듀레이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종신 채권형(VL)통합	-2.46	-2.62	-2.60	-2.77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4)	(-0.02)	(-0.07)	(-0.15)
비교지수(벤치마크)	-2.42	-2.60	-2.53	-2.62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종신 채권형(VL)통합	-2.77	-3.93	-1.96	1.2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5)	(-1.06)	(-1.71)	(-3.23)
비교지수(벤치마크)	-2.62	-2.87	-0.25	4.43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1	-	-	-	-	-	-	-3	-5
당기	-	-	-	-73	-	-	-	-	-	-	-3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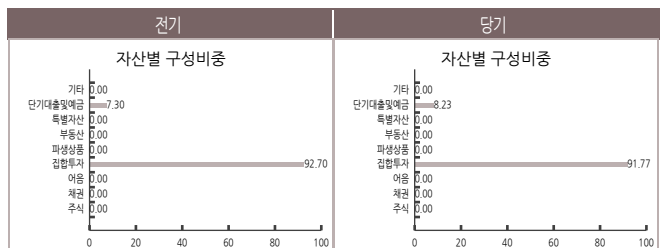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779	0	0	0	0	0	249	0	3,028
(1.00)	(0.00)	(0.00)	(0.00)	(91.77)	(0.00)	(0.00)	(0.00)	(0.00)	(0.00)	(8.23)	(0.00)	(100.00)
합 계	0	0	0	2,779	0	0	0	0	0	249	0	3,028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연액보통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91.77	6		
2	단기상품	온대(우리은행)	8.23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연액보통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채권형	2,909	2,779	대한민국	KRW	91.7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49	0.92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3	81	2,479,256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40	81	2,479,256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9	81	2,479,256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30	81	2,479,256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자권리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	--------

2019.01.25 ~ 현재
 2020.09.17 ~ 현재
 2019.01.24 ~ 현재
 2021.07.16 ~ 현재

최미영
 이대석
 김태현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	0	-
판매회사	3	0.10	3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3	0.11	3	0.11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295	0	0.4295
당기	0.4295	0	0.4295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증권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은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신 채권형(VL)통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대(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